누노타키 폭포

누노타키 폭포는 주위 산들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 형성된 계단식 폭포입니다. 니시아즈마 산과 니시다이텐 산 사이의 협곡을 지나 50m 의 바위 표면을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데, 그 폭포수는 작은 강이 되어 우라반다이(반다이산의 북쪽 지역) 최대 규모의 호수인 히바라 호수로 유입됩니다.

누노타키의 '누노'는 '옷감'이라는 의미이며, 폭포수가 바위에 걸린 옷감처럼 떨어지는 모습에서 유래합니다. 누노타키 폭포에는 도보로 데코다이라 습원에서 히바라 호수 방면으로 내려가면 갈 수 있습니다.